

다시 뜨거워지는 중한 관광 열기

길림대 · 한양대

제 2 회 인문학 심포지엄 한양 공자학원서



'5.1'절 연휴 심양 중가(中街)의 장안사(長安寺) 골목은 패션 감각과 활기찬 소비의 새로운 장면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다. / 신화넷

랴نگ 관광 객 '쌍방향 방문' 증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심화

랴녕성 심양시에 있는 고궁에서 느끼는 만족(滿族) 문화, 대련시에서 맛보는 성게 만두(海胆餃子), 급주시(錦州市) 필가산(筆架山)에서 감상하는 절경... 랴녕성 여행을 마친 한국 관광객 노제덕씨는 이번 여행이 매우 즐거웠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이 이번 여행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비용도 내야 했고 절차도 까다로웠지만 이제 비자 면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여행하기 더욱 편해졌다."고 설명했다.

2024년 11월 8일 한국측에 대한 중국측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여행에 대한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은 현저히 높아졌다. 2025년 2월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비 중국 본토를 찾은 한국 관광객수는 231만명으로 115.6% 가량 급증했다.

2024년부터 상해, 대련, 청도 등 도시는 '한국 관광객 급증'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항공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춘추(春秋)항공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된 후 서울 및 부산에서 상해로의 직항을 리용한 한국인 비중은 과거의 20%에서 30~45%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관광 열기는 랴نگ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랴نگ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문화를 깊이있게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여행 플랫폼에서는 장가계, 황산 등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상품 외에도 대련 '만두 여행', '중경 샵사브 여행' 등 미식 관광 상품이 인기다.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박 4일 중국 영화·드라마 여행' 패키지도 있다.

비자 면제 정책은 랴نگ 관광객의 '쌍방향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랴نگ간 여행객은 30% 증가한 약 572만여명에 달했다.

심양시는 중국과 한국간 문화 및 무

역 교류가 활발한 곳이며 심양시의 많은 여행사도 랴نگ 협력 전망에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월에는 서울에서 '2025 안녕 심양' 관광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랴녕 강휘(康輝) 국제여행사는 MJ City 유한회사와 <관광객 상호 송출 협력 협회>를 체결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을 공식화했다. 씨트립(携程) 관광연구원은 해당 정책은 방한 관광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시킬 것이라며 더 많은 중장년층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 단체관광객이 한국의 소매·면세·음식업의 회복과 랴نگ



5월 2일, 심양시 서탑상권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있는 여행객들. / 신화사

의 민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양 서탑거리, '독특한 한식'으로 관광객 발길 사로잡아

일전 연휴 기간, 랴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서탑(西塔)거리의 김밥과 떡볶이 로점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있었다. 관광객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들고 네온등 앞에서 사진을 남긴다. 순대와 막걸리가 가득 진열된 로점 앞에서 상인들은 시식용 작은 컵을 들고 호객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서탑거리는 심양에서 가장 큰 조선족 거주지로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오래된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짙은 민족 분위기와 독특한 민족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간장게장, 어묵탕, 탕면, 김밥 등 다양한 간식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심양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필수로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음식문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서탑거리가 글로벌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서탑거리는 지난 2022년 세계조선업연합회에 의해 '국제미식거리'로 선정되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거리 전체 길이는 700여미터에 불과하지만 400여개의 음식 및 오락 업체가 모여있다. 이러한 힘지는 100여개 한국 기업체의 진출을 이끌었다.

2004년, 회화과(繪畫科)를 졸업한 홍인수 부부는 다섯살짜리 딸을 데리고 중국에 와서 음식점을 냈다. 낯설던 심양시는 이제 익숙해졌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홍아저씨'로 불린다. 그가 직접 만든 화산치즈떡볶음은 출시되자마자 서탑거리의 인기 메뉴가 되었다.

홍인수 부부는 "예전에는 40~50대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더 많다."면서 과거에는 심양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주로 식당을 찾았지만 이제 심양의 문화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심양시 화평구는 서탑지역의 거리 개조 프로젝트를 가동해 기반 시설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광 매력을 강화시켜 서탑거리로 하여금 더욱 새롭고 세련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도록 했다.

/ 신화넷



2025년 4월 26일, 한양대학교 공자학원(원장 권혁률)에서 주최한 '길림대학·한양대학 제2회 인문학 심포지엄 - 2025년 국제 중국어 교육 전문 학술연구토론회'가 한양대학교 국제관 618호 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마감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길림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등 8개 중한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 교수들이 모여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깊이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으로 국제 중국어 교육의 최전선 의제를 탐구하고 중한 학술 교류와 중국어 교육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한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 분야에 학술 교류 플랫폼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중국어 교육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 한양대 공자학원, 《결림신문》 해외판 최화기자

중한시범구, 한국어 서비스로 맞춤형 지원 강화

5월 6일, 중한시범구에서는 우수한 영업환경 조성과 한국 기업의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대청에 한국어가 능통한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시범구에서는 한국 기업 서비스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국제화·전문화·편리화된 행정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 업무 처리 시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구역내 한국어가 능통한 우수 인력을 한국 기업 서비스 겸직 요원으로 선발하여 정책 상담부터 업무 처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동시에 중한 이중 언어판 <중한시범구 정부서비스대청 한국 기업 고빈도 사항 서비스 가이드>와 중영 이중 언어판 <중한시범구 정부서비스대청 외국 기업 고빈도 사항 서비스 가이드>를 제작해 외국 기업의 빈번한 문의 사항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오프라인 업무 처리 시 창구 직원과 서비스 요원이 '사항 대행 접수, 처리 진행 상황 추적, 결과 피드백'의 전 프로세스에 거친 1:1 맞춤형 대청 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실시간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등록부터 운영까지 전 '생명주기 관리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뛰어난 서비스로 한국 기업만의 최전방 기지를 구축하여 한국 기업의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고 상호 이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차후 중한시범구는 수요 지향적 운영 원칙 아래 한국 기업 서비스 창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한국 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수요와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콘텐츠 최적화, 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범구에서의 한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명준기자

한중도시우호협회, 하남성 교장 방한단 초청 교류

—한국공화대학교·인천영화국제관광고 등과 교류



간담회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한중 관계자들(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석선화 교장, 이현준 교장, 권기식 회장.)

2025년 4월 30일,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는 중국 하남성 고등학교 교장 한국방문단(단장 석선화, 정주 시아스중등전문학교 교장)을 초청해 한국 교육계와 교육 교류 행사를 열었다.

중국 교장 방한단은 한중도시우호협회의 주선으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국공화대학교(총장 황수성)를 방문해 대학 시설들을 참관하고 한민심 인재양성 사업단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한국 유학 및 학생 교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인천시 동구 소재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교

장 이현준)를 방문해 학교 시설들을 참관하고 한중 교육 교류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권기식 회장은 "한중도시우호협회는 2025년 1월 60명의 강소성 초등학교들을 초청해 교류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엔 하남성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 교류 행사를 열었다."며 "협회는 앞으로 한중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교육 교류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방한단에는 정주, 개봉 등 하남지역 교장 10명이 참여했다. / 한중도시우호협회, 《결림신문》 해외판 이호국기자

한국 건축학 교수 "한중 빈번한 교류, 건축사에서도 확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과학기술관 7층에 위치한 한동수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면 책상과 진열장에 놓인 조선시대 정자(亭子) 건축 모형과 중국 청조시기 두공(斗拱) 모형이 눈에 띈다.

전통 건축 역사를 연구하며 한양대학교에서 24년간 교편을 잡아온 한동수교수는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유학하며 청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수교수는 "10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미처 몰랐던 한국 건축의 원류, 중국과 한국 건축의 차이점, 교류 방식 등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 유학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건축의 가장 큰 힘과 특징으로 여러 민족이 어울리는 가운데 형성된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도 유지되고 구현된 일관성과 연속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합원(四合院)을 대표적인 레로 들었다. 사합원의 건축 배열 방식과 공간배치 규칙이 보여준다는 이러한 일관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양 등 여러 나라의 건축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5천년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한동수교수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신화사

그 핵심적인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수교수는 예로부터 중국과 한국 사이엔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며 건축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다양성'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전통 건축은 시기별로 눈에 띄게 스타일 변화가 나타났다가보다는 어떤 기법이나 양식이 한번 나타나면 오래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송시기에 존재했으나

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전파되었다고 밝혔다. 수덕사 대웅전(修德寺大雄殿), 봉정사 극락전(鳳停寺極樂殿),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 등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건축물들을 비교해볼 때 송대 건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로 볼 때 주초(柱礎), 지붕에 있는 기와편 등 삼국시대 건축 부재들이 중국 당나라시기와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여준다. 특히 백제에서 발견된 치미(鸚尾·동아시아 건축에서 건물 지붕 랑끝을 장식하는 기와)는 당나라 때 장안(長安) 지역에서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한동수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분명히 건축 분야에서의 양식과 기술 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한동수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건축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극소수이며 따라서 중국과 한국 건축의 비교에 관한 연구와 발전 공간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청나라 때 유명한 건축 가문인 '양식뢰'(樣式雷)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바람도 전했다. / 신화넷